병무청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이후 배포 2026. 11. 23.(월) 14:00

병무청, “입대 청년을 위한 응원과 격려” 입영문화제 특별행사 개최

- 공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청년과 가족 4,300명에게 따뜻한 격려 전해
- 청춘예찬 콘서트, 군복무를 향한 당당한 첫걸음에 특별한 추억 선사

□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11월 23일,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4,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당당한 한 걸음,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!’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특별행사 ‘청춘예찬 콘서트’를 개최했다.

□ 입영문화제는 입영하는 장병을 응원하고, 가족·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병무청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다.

□ 이번 “청춘예찬 콘서트”는 입영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을 격려하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 특히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 공유함으로써, 현장에 오지 못한 국민들도 정책효과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혔다.

□ 행사는 공군 의장대의 절도있는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. 중계 카메라를 통해 관중의 응원 퍼포먼스를 포착하여 진행한 관중 참여 이벤트는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, 이어진 ‘슬기로운 군생활 Q&A’ 시간에는 공군 간부가 군복무 관련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여 장병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□ 이밖에도 ‘감사와 사랑의 길’, ‘사랑의 편지쓰기’, ‘포토존 사진 촬영’, ‘군번줄 제작’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.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‘군복무크레딧’ 제도를 안내하고, 군측은 입대 후 사용하게 될 보급품을 전시하는 등 민·관·군이 함께 참여자들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.

□ 특히,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청춘의 시기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준 데 깊은 감사를 표하고, 몸도 마음도 한층 더 늠름하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지원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.

□ 홍소영 병무청장은 “군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,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병무청이 디딤돌이 되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아론	(042-481-2712)
		담당자	서기관	최명희	(042-481-271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